

# 가정전문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윤영미(가정간호사회)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가정전문간호사가 지각하는 직무스트레스 및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알아내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2003년 4월 3일 가정전문간호사회 총회에 참석한 전수를 대상으로 배부된 150부의 설문지중 회수된 123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문헌고찰과 델파이 기법을 응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가정전문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도구와 장세진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도구인 PWI SF 18문항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정전문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최대 평점 5점에 대해 평균 3.46으로 중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중 ‘환자직접간호’ 요인이 3.78로 가장 높았다. 문항별로는 ‘방문시 교통사고나 위협을 느꼈을때’ 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정방문시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 발생시’ 가 4.06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요인별 스트레스정도를 보면 연령이 30-39세 사이의 가정전문간호사가 ‘의료 한계에 대한 부담감’ 요인에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학력이 대학원이상인 경우 ‘업무량 과중’ 요인에서, 기혼이 ‘직무환경’ 요인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 연금여액에서 3,500만원 이상의 급여자가 ‘업무량 과중’ 요인에 스트레스가 높았고 1,500~2,499만원의 급여자가 ‘부적절한 보상’ 요인과 ‘대인관계’ 요인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정도는 직위가 일반가정전문간호사인 경우 가장 높았고 수 가정전문간호사, 주임가정전문간호사 순이었으며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이상 근무하는 그룹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 사회적지지가 높은 그룹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그룹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결론:**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 및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및 의료 사고에 대해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및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등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적극 활용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